

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(3.25.)

- 중동전쟁이 4주째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총리 주재 비상경제대응본부를 즉각 가동하여 민생과 경제·산업, 에너지 수급안정 등 대비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.
- 새는 “안락한 등지를 벗어나야 비상(飛上)”할 수 있습니다. 위기라 해서 도전을 멈추고 웅크리면 미래가 없습니다.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.
 - 위기 극복을 넘어,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.
- 이에 오늘 ‘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’를 개최하겠습니다.
 -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, 2026년을 “국가창업시대의 원년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
[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]

- 먼저, 전국민 창업 오디션인 ‘모두의 창업’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.
 - 내일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5천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지역·권역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합니다.
 -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500여명의 선배 창업가와 100여곳의 전문 창업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합니다.
 - 1인당 창업활동자금(2백만원) 및 팀당 사업화자금(1~3천만원)도 함께 지원합니다
 -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 -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우대하는 등 제도전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.

[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]

☐ 아울러, 로컬창업 - 성장·집적 - 상권확산 등 점(點)·선(線)·면(面)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'모두의 지역상권 전략'도 추진합니다.

☐ 먼저, 점(點)입니다.

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로컬창업가 1,000명을 발굴해 창업활동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가(400명)로 구성된 로컬창업 멘토단을 운영하겠습니다.

○ 상권분석, 메뉴개발 컨설팅 등 AI 활용 3종 서비스를 제공*하고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제조 바우처**를 지원하겠습니다.

* AI 도우미(상관노무세무 등, '26.3Q), AI 네비게이션(메뉴 등 컨설팅, '26.4Q), AI 교육(푸드뷰티 등, '27)

** ('26년) 창업성장 R&D(50개사, 100억원), 중소기업혁신바우처(75개사, 22.6억원)

○ 창업공간 확보를 위한 상가 임차전용 자금(100억원)을 신설하고 농어촌의 빈집도 리모델링하여 로컬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☐ 둘째, 점을 연결하는 선(線)입니다.

지역상권을 이끄는 앵커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○ 매출은 적지만 잠재력이 큰 기업이 충분한 성장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.

○ 해외진출 기업에 상품개발과 마케팅 등 최대 1억 원을 패키지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신설하겠습니다.

☐ 셋째, 면(面)입니다.

활력 넘치는 상권을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.

○ 대국민 평가단이 직접 선정한 유망상권 17곳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관광상권으로 키워나가는 한편,

○ 지역성장펀드와 지역기업, 투자사,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'상권혁신펀드'를 조성하여 탄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☐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

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(중기부 모두발언)

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